

# 왕조실록 태백산본 보존된 현대의 史庫

## 책의 해에 찾아가본 책의 명소 7 - 정부기록보존소

한 책의 보관장소의 행로를 따라 한 시대를 조감해보는 일은 자못 흥미로운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현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할 만큼 기구한 ‘인생역정’을 지니고 있으므로 파란만장했던 조선조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의 한 단면을 들춰보는데 안성맞춤이다. 또한 왕조시대에 왕을 단위로 편찬된 역사서라는 뜻을 가진 ‘실록’답게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된 鼎足山史庫本과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보관된 太白山史庫本. 굴곡 심한 생애를 누리다가 이제 천수를 누릴 환경 속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 이중 태백산 사고본 「실록」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편력을 그가 거주했던 ‘집’의 역사를 통해 더듬어본다. 이 부분은 강형숙교수(계명전문대)의 논문 「태백산사고 실록 판본고」와 송석호교수의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존」에 전적으로 기댈음을 미리 밝힌다.

### 「실록」 보관의 역사는 조선조의 한 단면도

이조에서 실록을 편찬한 것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 15권을 펴낸 것이 처음이며, 이후에 등극한 왕들이 죽으면 차례로 실록이 편찬되었다. 태조·정종·태종의 3대 실록은 각각 2부씩 등사하여 서울의 춘추관과 고려시대로부터 실록을 보관하던 忠州史庫에 보관했다. 그러나 2부의 실록만으로는 그 보존이 매우 걱정되므로, 1445년(세종 27)에 다시 2부씩을 더 등사하여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설치하고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했다.

조선시대의 실록보존을 위한 史庫제도는 임진왜란이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 선조25년 왜군에 의해 충주사고가 소실되었으며, 성주사고의 「실록」도 운명을 같이했다. 춘추관사고는 선조가 의주를 향해 도성을 떠나자 난민들이 궁궐과 노비문서 등을 불태울 때, 史草와 「승정원일기」 등과 함께 소실됐다. 다만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화를 면했다. 왜군이 전주를 공략하려 하자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이 대적하여 지체시키는 사이에 몇몇 관리와 선비들이 정읍 내장산 은봉암으로 개소시키고 7월 14일에는 비래암으로 이안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의 피신처였던 은봉암과 비래암은 현재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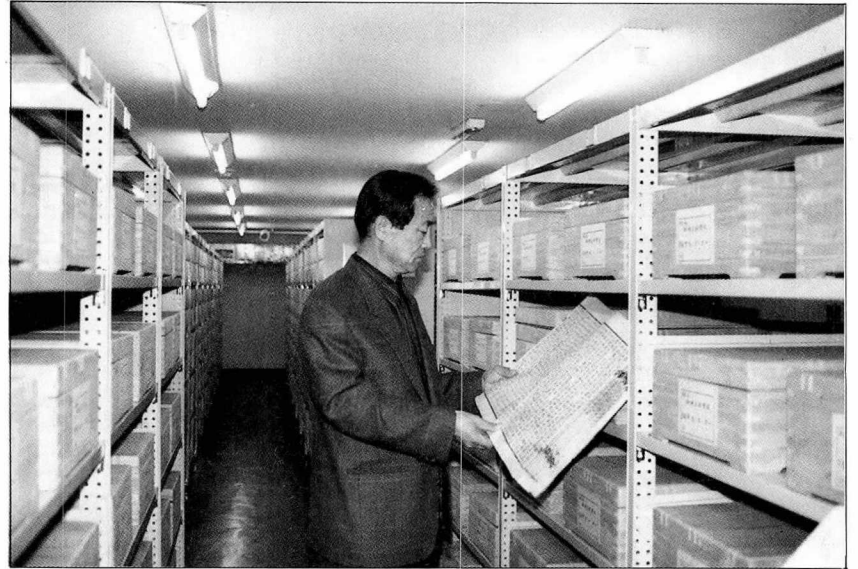
일년 후 史官이 파견되어 육로로 아산으로

옮겨지고, 다시 해로를 거쳐 해주로 ‘이사’가게 되었다. 당시 해주마저 안전지대는 아니었던 이유로 깊은 산이나 영변에 다시 거처를 마련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바야흐로 왜군이 남으로 패퇴하자 그대로 해주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해주가 평생의 안식처가 되기엔 부족한 게 많았다. “屋宇도 낮고 좁아 國史를 장치할 곳이 못되며 또 官舍가 연결되어 있어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강물이 얼기 전에 급히 강화로 이안되었다. 그때가 선조 28년 1595(11월경)이었으니, 3년 동안 전주, 은봉암, 비래암, 해주, 강화 등을 전전하며 셋방살이의 설움을 토틈히 맛보아 했던 셈이다. 그러다가 1596년 4월 왜구가 재침략(정유재란)하자 「실록」은 다시 영변 보현사로 거처를 옮겼다. 정유재란의 풍파도 잠잠해지자 재차 강화에 터를 잡았다.

이때 조정에서는 불의의 환난으로 인한 「조선왕조실록」 유일본의 상실을 염려하여 再刊의 논의가 활발히 일었다. 평란 후, 전국도가 초도화되어 물자가 결핍함에도 불구하고 「실록」 재출간 사업이 시작됐다.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태조실록부터 출판하였다. 이때 단 3부만 출간했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원본과 교정본을 합하여 5부의 실록이 마련됐다. 1부는 옛날과 같이 서울 춘추관, 다른 4부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심산유곡과 성을 택하여 강화도 마니산, 경북 봉화군 태백산, 평북 영변군 묘향산, 강원 평창군 오대산의 사고에 자리잡았다. 임란을 거처며 험한 단신으로 남았던 「실록」은 전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여러 자녀를 생산하여 각기 분가시키기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역시 조선왕조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었다. 춘추관에서 一家를 이루었던 실록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불타 죽었다. 묘향산 실록은 1633년 만주에서 일어난 後金(이후 청나라)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전북 무주군 적상산으로 이사갔다. 마니산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큰 부상을 입었다. 낙절·낙장된 것이 많이 생긴 것이다. 이 마니산 실록은 1678년(숙종 4)에 정족산사고로 주소를 옮겼다.

「조선왕조실록」의 수난사는 1910년 조선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계속된다. 정족산·태백산사고의 실록은 조선총독부 학무과에 압적되고, 적상산 것은 모처의 장서각으로 셋방살이를 떠나게 되었다. 오대산 실록은 지금의 동



“정부기록보존소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史庫”라고 설명하는 김태원 부산지소장.

경제대에 불모로 잡혀갔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에 화재로 인해 비운의 일생을 마쳤다. 셋방살이 하던 적상산본은 해방 후 ‘납치’되어 낙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 행방불명되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남은 실록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의 정족산본과 정부기록보존소의 태백산본뿐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이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때는 1929년이다. 「국사대사전」에 의하면, 태백산본을 저본으로 하여 30부가 영인됐다. 해방 후 정읍사에서 간행에 착수하다가 중단됐고 1955년부터 4년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시 태백산본을 47책으로 영인·간행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완역은 올해에 끝남으로써 일반국민들도 그 근엄한 근영을 대할 수 있게 됐다.

### 현재 최첨단 史庫에 보관중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본은 현재 ‘대한민국의 史庫’인 정부기록보존소에 영원한 정처를 구했다. 1969년 8월에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는 광복 이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중요한 정부공문서를 이관받아 보존하는 한편, 국내외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주요기록물을 발굴·수집하는 총무처 산하 기관이다. 기획·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서울본소는 청와대 앞길 창성동에 소재하며, 기록물 보존·관리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부산지소는 동래구 거제동 사직구장 뒷산 중턱에 자리한다.

부산지소는 지난 84년 11월에 문을 열었다. 지상2층, 지하4층의 초현대식 건물로서 ‘첨단 史庫’의 역할을 담지해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삼

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비행기의 폭격에도 끄떡없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부산지소장 김태원씨(59)는 “서고가 있는 지하4층에는 모두 두께 60cm의 내벽과 1m의 간격을 두고 1m 두께의 외벽을 쌓는 등, 이중벽을 만들어 유사시에도 보관된 자료들이 훼손될 염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어서 외부방호시설뿐 아니라, 서고내 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한 각종 첨단시설에 대해 얘기한다.

“서고내 온도와 습도를 각각 섭씨 18~22도와 40~60%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자동항온항습장치와, 물에 가장 취약한 문서의 특성상 화재시 물 대신 사용하는 하론(HALON)가스 소화시설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또 도난방지를 위해 각종마다 감시카메라 및 초음파탐지기를 설치해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조정·감시하는 등 완벽한 방호 및 보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건평 5천2백여평 규모의 문서고 중, 지상 2층에는 기록과 자료를 소독·가공하는 자료처리 시설과, 열람실·사무실 등이 있으며 지하4층에는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20개가 들어있다.

“서가의 총연장은 32km로 3백면짜리 책 1백60만권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가 바닥에는 서가를 자동 혹은 수동으로 한곳에 밀어붙여 밀폐된 상자처럼 만들 수 있는 서가 이동용 레일을 깔아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도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인사의 경우 최첨단·초현대식 장서각을 지어놓고도 전기세를 강담하지 못해 여전히 ‘자연의 힘’을 빌어 팔만대장경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월 5, 6백만원어치의 전기를 쓰지만 부담이 없다. 단지 훗날 史料가 될 3백만점 가량의 자료를 최적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보존하는 데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

김 지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된 지하4층을 향했다. 출입구 앞에 도착하자 스피커를 통해 “누구십니까”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앙통제실의 화면을 통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신원을 확인하는 게 규칙인 모양이었다. 서고에 들어서자 왼편에 「조선왕조실록」이, 오른편에 “역대 대통령 문서”가 서가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항온항습장치에 더 보태어 오동나무 껍에 넣어 보관되고 있었다. 「실록」의 출생 이후 그런 ‘호강’을 하며 만수무강을 기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곳에 ‘모셔진’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은 종이표지로 돼있다. 원래는 전주사고본처럼 비단(絹)옷을 입어야 했지만 전후 물자가 궁핍한 시대에 태어난 연유로 종이 옷을 입게 된 것이다. 다만 옷색깔은 비단옷처럼 감색으로 염색했다. 그 판형은 42.5×26cm를 넘지 않으며, 한 페이지에 15행 24자 또는 15행 30자를 담고 있다. 책의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원래 “극히 精厚한 종이”인 壯紙를 써야했지만, 역시 시대를 잘못 만난 관계로 “白紙 중에서 조금 좋은 종이”라는 常白紙를 사용했다. 그러나 임란 후 「인조실록」부터는 다시 장지가 사용되었다.

그 「조선왕조실록」은 왜 중요한가. 사료적 가치가 지대하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그 단적

## 조선시대의 종합보고서로서 손색없는

「조선왕조실록」은 자신을 잉태한

왕조와 그의 운명을 공유했다.

현전하는 것이 하나의 기적이라

회자될만큼 파란만장의 사연을 지닌다.

지금은 규장각에 보관된 정족산本과

대한민국의 史庫인 정부기록보존소에

태백산本이 남아 있다.

그 태백산본의 ‘인생유전’의 행로를

간략히 더듬어 본다.

인 실례는 조선시대를 다룬 논문들을 아무거나 집어봐도 금세 찾아진다. 「조선전기(태조~선조24년)의 권력구조연구」란 60여페이지 분량의 논문에는 인용각주가 373번까지 매겨져 있는데, 그중 3백개 가량을 史料의 본문에서 따오고 있다. 3백개에서 2백개 가량의 출전이 「조선왕조실록」인 것이다.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료의 양으로 따져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예컨대 한중일 관계 기사만을 번역문 없이 발췌한 「조선왕조실록抄·1」(단국대 동양학연구소)은 1천2백페이지의 분량이다. 따라서 최고의 신뢰성을 지닌 종합적 역사서로서의 권위와 함께 1893권에 이르는 부피를 지녔다는 점에서 역사적 보물의 바다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史論은 다른 史書의 그것과 다르다는 특징도 지닌다. 여타 사서의

사론은 과거에 대한 논평임에 비해 실록은 당시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史官의 그 시대에 대한 역사의식을 살피는 데 유용하며, 현장감과 생동감이 넘친다. 그리고 여타 사서의 사론은 특정 개인의 주관적인 논평임에 비해, 실록의 그것은 사관이라는 집단의 논평이므로 사관 한 집단의 역사인식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차장섭, 「조선전기 실록의 사론」). 이는 실록 편찬의 목적이 人君의 언동과 政事를 기록함으로써 후세의 귀감으로 삼는 것을 전하는 데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사관이 서두에 “史臣曰”을 붙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논평할 수 있게끔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人君이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皇天과 史筆뿐이다”라고 태종은 말했다고 한다. 거기에서 直筆을 좌우명으로 삼는 사관들의 역사에의 소명의식도 「조선왕조실록」의 사료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

## 영인에 이어 울초 번역본 완간돼

한편 서울본소 정부기록보존소(소장 김기욱)는 ‘책의 명소’라기보다는 주요문서와 사진 등 장차 귀중한 1차사료가 될 만한 희귀자료의 총본산에 해당한다. 특히 올 7월 23일부터 8백여종의 비중있는 자료를 선별해 ‘기록물상설전시장’을 개설하여 일반에 공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경북궁 서쪽 효자로 초입 옛 국민대자리에 위치한 서울본소의 이 전시장에는 임시정부관련문서, 유관순판결문, 독도관계서류, 역대대통령의 주요결재문

서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전시돼 있다.

그러나 사료의 전승과 집성은 그 자체로서는 병어리일 터이다. 수집된 자료를 ‘관람’만 하는 것은 골동애호가와 완상 취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기록물 수집·관리, 기록보존제도의 연구·기획 등에 못지 않게 연구자들과 관심있는 일반인이 적극 활용가능한 제반여건을 완비하는 데 정부기록보존소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장자료의 목록작성 작업과 ‘기록보존 협의회’ 구성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의 종합보고서인 「조선왕조실록」은 그 자신의 수난史를 마감하고 이제는 최첨단 史庫 혹은 ‘대한민국의 史庫’인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 자신을 잉태한 왕조와 동고동락의 세월을 보낸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의 의미를 반추케 한다. 왜 왜군은 무엇보다 먼저 史庫를 불태웠는가. 무능한 왕조를 대놓고 비웃던 유민들은 왜 史書를 불태웠는가. 몇 번이나 기사희생한 「조선왕조실록」은 왜 지금까지 극진히 모셔져야 하는가 등등의 의문이 그것이다. 영인본에 이어 번역본이 완간된 작금, 「조선왕조실록」은 일개인의 서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훗날 「조선왕조실록」에 관련된 최고의 명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역사의 본질과 의미를 치열하게 탐구한 자의 서재가 아닐 것인가.

—김중식 기자

## 고침

10월 5일자(통권 136호)에 실렸던 본란에서 “이병도씨”를 “이병주교수(동국대 국문과)”로 바로잡습니다.

#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바 하리 다스 지음/유시화 옮김/4,000원

###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스꽝스러운 본질/최시림 옮김/3,500원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짐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ئن, 귀보뿔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ئن 외 지음/이효림 엮고 옮김/3,500원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근-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신의 들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 한 책/피터 톰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버터드 T. 스펀딩/정창영 옮김/7,000원

###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 마어록/오쇼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중오 옮김/5,500원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 나를 점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계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3,500원

###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대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엮 감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